

한국어
회화 교수의
이론과 실제

김순녀

민족출판사

한국어 회화 교수의
이론과 실제

김 순 녀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会话教学理论与实践 / 金顺女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7. 6

ISBN 978-7-105-08395-4

I. 韩… II. 金… III. 朝鲜语-口语-教学参考资料 IV. H559.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096142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7年6月第1版 2007年6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787毫米×1092毫米 1/16 印张: 17.625

字数: 250千字 定价: 25.00元

ISBN 978-7-105-08395-4 / H·610(朝53)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7년 6월 제1판 2007년 6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787mm×1092mm 1/16 전지: 17.625

자수: 250천자 값: 25.00원

ISBN 978-7-105-08395-4 / H·610(조53)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한국어 회화 교수의
이론과 실제

김 순 녀

머리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은 동시에
고 상호 보완적이므로 엄격히 나누어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어느 한 기능만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교육의 편의상 초점을 어디에 두고 학습이 이루어지
느냐에 따라 말하기 연습이니 쓰기 연습이니 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따름이다. 이 글에서 한국어 회화를 말하기 영역으로 굳이 나
누어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편의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싶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회화 교육은 양국의 수교가 수립되기 전부터
이미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1992년 양국의 수교가 이
루어진 후 본격적으로 회화 교수가 진행되면서 이제 하나의 어엿한
외국어교육의 자격을 갖추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동안 한국어 교
육과 더불어 한국어 회화 교육에서도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회화 교
재 편찬과 교수 방법 및 평가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
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한국어 인재도 많이 양성해 냈다.

말하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즉 어떤 이는
음성화적인 면에서 올바른 발음과 속도, 음성의 크기 등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문법적인 면에서 주술 관계가 잘되었는지, 적절한 조사와 어미를 사용하였는지, 생략과 축약은 올바르게 사용하였는지, 경어법에 맞게 발화되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또한 형태나 어휘론적인 논의도 가능하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문어로 쓸 때와 구어로 말할 때는 전달 방법이 달라야 한다. 글로 썼을 때는 독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지만, 음성으로 말할 때는 한 번 지나간 말은 다시 듣지 못하므로 훨씬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듣는 사람이 복잡한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으므로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고는, 중요한 내용은 반복을 한다고는, 복잡한 내용은 다시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 준다고는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회화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다.

회화교수에서의 말하기는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에서 다음의 내용들이 모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의 구별

교수에서의 질문과 답변, 회의석상, 친구들과의 사적인 대화, 공적인 것과 사적인 이야기 등을 구별하여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혼자 말하기나, 집단 말하기나를 구별해야 하고, 집단 말하기일 때는 정해진 규칙 순서에 따라 발언권을 얻어 정해진 시간 내에 맞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청자와의 관계, 때와 장소에 따른 말하기

청자가 누구냐, 공식석상이냐 사적인 자리이냐, 연설이냐 아니면 변론이냐, 제3자가 있느냐 없느냐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평가 능력을 기른다.

셋째, 목적에 맞게 전략을 세워 효과적으로 말하기

말하기는 취직, 승진, 합격 여부에서부터 한 사람의 성공 여부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으로서의 텍스트 언어학적인 분석과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많은 말하기의 이론보다는 말하기의 실체를 통하여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얻고자 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5분간 연설의 기회를 준다든가,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운동을 벌이기 위해, 또는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토의한다든가 등등, 수없이 많은 주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주제에 대해 친구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토론이나 변론을 시키는 것도 말하기 교육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때 담화나 텍스트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이해시키며, 결국 모든 말과 글은 결속성, 의미성, 응집성, 완결성, 정체성을 가지는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언어학은 대인 관계나 상황 맥락 속에서 언어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사용되는지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회화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많은 귀하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우선 이 책을 국가 중점학과 연구 항목으로 밀어주고 연구비까지 듬뿍 지원해 준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자료까지 제공해 주신 최희수 교수님과 유춘희 교수님, 타국에서 부족한 제자의 연구에 구도까지 잡아 주신 지도교수인 서울대학교 윤희원 교수님과 선배님인 권순희 교수님, 이 두 교수님은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책의 감수를 맡아 주셨다. 또 마지막 교정까지 세심하게 봐주신 서울대 박사과정의 박준홍 씨를 비롯한 여러 후배님들, 마지막 심사를 마치고 좋은 평가와 함께 보귀한 의견을 주신 이득춘 교수님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

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을 쓰는 동안 많은 시간과 편의를 마련해 준 사랑하는 남편과 두 딸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족의 사랑과 힘의 보람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끝으로 몇 달 전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존경하는 아버지, 병마와 싸우시던 힘든 나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이 딸을 어쩌다 찾아가면 그렇게도 반가워하시더니, 그 때의 그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이에 늦게나마 아버지 영전에 이 책을 삼가 드린다.

2007년 1월
저자가 연길에서

차 례

제1장 한국어 회화 교수의 특성	1
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1
1.2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5
1.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특성	12
1.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의 목적과 내용	16
1.5 한국어 회화의 특성	20
제2장 한국어 회화 교수의 목표와 임무	25
2.1 회화 교수의 목표	26
2.2 회화 교수의 내용	33
2.3 회화과 교수의 원칙과 방법	35
제3장 한국어 회화 교수의 연구 현황과 문제점	43
3.1 외국어 교수법의 주요 유파와 회화과 교수	43
3.2 회화 교수의 연구 현황과 문제점	87
제4장 한국어 회화 교수요강	97

4.1 회화 교수요강 편찬의 기초 작업	98
4.2 회화 교수요강과 금후의 과제	107
제5장 한국어 회화 교수와 교수 방법	117
5.1 회화 수업에서의 말하기 지도	118
5.2 회화 교수 연구	121
5.3 회화 교수의 방법	134
제6장 한국어 회화 교재	153
6.1 교재의 중요성	153
6.2 회화 교재 편찬 의거와 편찬 원칙	156
6.3 회화 교재의 현황과 과제	177
제7장 한국어 회화 평가	201
7.1 평가 일반론	203
7.2 교육과정의 평가 유형과 기준	209
7.3 초급 회화의 평가 원칙과 방법	214
7.4 면접시험의 채점 기준과 방법	230
제8장 한국어 회화 교사의 역할과 자질	241
8.1 한국어 교사의 특성과 역할	242
8.2 한국어 교사의 자격과 태도	246
8.3 한국어 회화 교사가 구비해야 할 자질	250
참고문헌	267

제1장 한국어 회화 교수의 특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은 동시에
고 상호 보완적이므로 엄격히 구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의
교육 상황에서도 어느 한 기능만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 다만 교육의 편의상 초점을 어디에 두고 학습이 이루어지느냐
에 따라 말하기 연습이니 쓰기 연습이니 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따름이다. 이 글에서 한국어 회화를 말하기 영역으로 굳이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편의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싶다.

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어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얼핏 보기에는 매우 간단한 개념
인 것 같지만 복잡하고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외국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립이 없기에
언어정책에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민족
국가에서 소수민족이 주체 민족의 언어나 다른 소수민족의 언어를
배웠을 경우 이를 외국어로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 어느 한 개인
이 어려서부터 자기 민족의 언어를 모르고 타민족의 언어를 전용

(轉用)해 쓰다가 바뀌 말하면 자기의 모국어로 쓰다가 자기 본 민족의 언어를 배울 경우, 이를 외국어로 보아야 하는가 보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등이 그것이다. 이 문제로 하여 논쟁이 일기도 한다.

현행 중국의 언어정책으로는 소수민족이 한어나 다른 민족의 언어를 배웠을 경우 이를 외국어로 인정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자기 민족의 언어를 모르고 다른 민족의 언어를 모국어로 써 온 사람이 후에 자기 민족의 언어를 배울 경우에도 외국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족 학습자들은 두 가지 언어를 배우지만 소수민족 학습자들은 세 가지 언어를 배워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서 제기되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를 아래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기도 하다(劉珣, 2002).

1.1.1 ‘제일 언어’와 ‘제이 언어’

‘제일 언어’란 “사람이 태어난 다음 처음 접촉하여 배운 언어”이고 ‘제이 언어’란 “사람들이 ‘제일 언어’를 습득한 다음 새롭게 배워서 사용하는 다른 언어”라고 한다.¹⁾ 그 다음에 배운 제삼, 제사의 언어도 통틀어 ‘제이 언어’라고 한다.

1.1.2 ‘모국어’와 ‘외국어’

이는 언어를 화자의 국적에 따라 나눈 것으로 ‘모국어’는 본 민족

1) 배두본에서는 ‘제이 언어’란 아이가 태어나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가 ‘모어’이므로 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모어’ 다음에 습득하게 되는 언어를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하는 다른 언어를 포괄하여 ‘외국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외국어’란 ‘모어’ 이외의 모든 언어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외국어’란 인간이 출생한 후에 처음 습득한 언어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본토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배두본, 2000:12).

의 언어를 가리키고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리킨다. 이 경우에 “모국어=제이 언어”이고, “외국어=제이 언어”일 수도 있고 “모국어=제이 언어”일 경우와 “외국어=제이 언어”일 경우도 있다²⁾.

위의 분류가 단일민족국가에서는 성립될 수 있는 분류이다. 한국이나 조선에서 ‘외국어’와 ‘모국어’에 대한 사전 해석을 보면 아래와 같다.

<외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른 나라의 말”, “외어(外語)”, “타국어”로 해석하고,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외국말”, “다른 나라의 말”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말큰사전』에서는 “외국말”, “다른 나라의 말”, “외어”, “타국말”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모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기 나라의 말”, “모어”,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자라나면서 배운, 바탕이 되는 말” 등으로 해석하고,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대대로 써 오는 자기 조국의 말”,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가리키는 말”, “모어”로 해석하였고, 『우리말큰사전』에서는 “자기 나라의 말”, “모어”, “제 겨레의 말”, “본국어”, “어머니에게 배운 토대가 되는 말” 등으로 해석하였다.

1.1.3 본 민족 언어와 타민족 언어

이는 언어를 민족의 경계에 따라 나눈 것으로 본 민족 언어는 자기 민족의 언어로 ‘모국어’와 통용되고, 타민족 언어는 ‘외국어’일

2) 주관적인 관점에서 ‘모어’와 ‘모국어’는 아이가 소속된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친숙한 언어를 말하므로, ‘제이 언어’나 ‘외국어’는 ‘모어’보다 덜 친숙하고, 덜 새롭고, 낯선 언어를 의미한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이 언어’와 ‘외국어’를 구분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학습자의 주거 환경에 따른 변화와 관련하여 구분하는 경우이다. 어린이나 성인이 ‘모어’를 습득하여 ‘모국어’로 사용한 후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나 국가에 이주하여 그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새로 습득할 경우에는 ‘제이 언어’를 습득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나 국가에 살면서 ‘모어’ 이외의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경우에는 ‘외국어’ 학습이라고 한다(배두본, 2000: 13).

수도 있고 본국의 다른 민족의 언어일 수도 있다.

단일민족국가에서는 “제일 언어=모국어=본 민족 언어”의 공식이 성립되지만 다민족국가에서는 이러한 공식이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민족국가의 주체 민족의 경우에는 “모국어=본 민족 언어”의 공식이 성립되지만 소수민족의 경우에는 “모국어≠본 민족 언어”이기 때문이다.

다민족국가 소수민족들의 언어생활과 언어교육의 실재를 고려할 때 ‘모국어’와 ‘외국어’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모국어’의 내포를 좁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을 때에 배운 언어”로 정의하고 ‘외국어’의 외연을 넓혀 “모국어 이외의 모든 언어”라고 정의하여 다민족국가에서 다른 민족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도 ‘외국어’ 습득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에 제일 합당한 용어로는 ‘모국어’를 ‘모어’라 하고, ‘외국어’를 ‘외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립할 경우, 사람에 따라 “모국어=본 민족 언어”일 수도 있고, “모국어=타민족 언어”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굳이 ‘제일 언어’, ‘제이 언어’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다민족국가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 나라 통용어 교육의 실질은 ‘외국어’교육이다. 그런데 지금의 ‘외국어’의 개념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해석되기에 이를 ‘외국어’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로 하여 똑같은 민족의 학습자, 예를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족 학습자가 한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외국어 공부’라 하게 되고, 중국 경내 조선민족 학습자가 한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외국어 공부’라고 하지 않고 ‘한어 공부’라고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다민족국가에서 받는 소수민족 학습자들의 대우도 모순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와 조선민족 학습자가 어려서부터 한어를 ‘모국어’로 써 오다가 똑같이 조선어를 배웠을 경우, 중국인 학습자가 습득한 조선어는 ‘외국어’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 조선민족 학습

자가 습득한 조선어는 ‘외국어’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외국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에서도 애매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다른 나라의 언어”란 ‘다른 나라에서 쓰는 통용어 또는 국어를 지칭하는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쓰이는 모든 언어를 다 지칭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외국어’를 배운다고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한국 사람이 중국에 와서 중국어가 아닌 몽골어나 만주어를 배울 경우에는 ‘외국어’라 부르지 않고 타민족의 언어 또는 ‘제이 언어’라고 불러야 하는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모국어’와 ‘외국어’의 개념의 내포와 외연에 변화가 일어났으나 낡은 개념을 고집하고 그에 따라 언어정책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앞에서와 같이 ‘외국어’와 ‘모국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모국어’ 이외의 ‘외국어’를 ‘제일 외국어’, ‘제이 외국어’, ‘제삼 외국어’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외국어’, ‘모국어’ 개념은 다민족국가의 소수민족들의 실제로부터 재고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외국어’라고 해도 좋고, ‘제이 언어’라고 해도 좋고, “타민족 언어”라고 해도 좋고, 어느 한 사람이 갓 태어나서부터 배운 언어 이외의 언어 습득이 똑같은 성질의 타민족 언어 습득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 바 ‘외국어’ 교육이란 사실상 어머니의 품속에서 배운 언어 이외의 모든 언어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1.2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언어교육은 자기 나라 말을 배우는 자국어 교육과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외국어 교육으로 구분된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조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으로, 중국에서의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이 형성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진행되어 왔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조선족’을 제외한 타민족과 중국어를 ‘모국어’로 써 온 일부분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194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발전하여 오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의 20여 년간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많이 변하였다.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부단히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위기감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중국 내에 사는 ‘조선족’ 인구의 축소로 인하여, 대도시화 과정의 인구 유동과 인구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족’ 학습자들이 ‘한족학교’³⁾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조선족’ 교육은 학습자 수가 줄어들고 학교 수가 축소되어 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개혁개방 이후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타민족 학습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한국어 학과를 개설한 대학교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주로 중·한 두 나라의 수교가 정상화된 이후, 중·한 두 나라 사이의 교류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라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학습자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성질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

3) 학교에서 교수 용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 사용을 한어로 하고 있는 학교로 주로 한족을 대상으로 꾸리는 학교이다. 그러나 현지 조선족을 비롯한 기타 소수민족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